

군산~청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팬오션 24일 취항 예정... 연간 6000TEU 물동량(군산항 물동량 11% 수준) 처리 전망

군산~중국 청도간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 개설로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27%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오션은 "팬오션(주)에서 군산~중국 청도간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에 24일 취항 예정으로 군산항 국제선 정기 항로가 5개에서 6개로 증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항에는 잠금상선(주)이 상해 컨테이너선 항로, 동영해운(주)이

중국 대련 및 일본, 닝보 컨테이너선 항로, 석도국제해리(주)는 군산~석도간 카케리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군산~청도간 신규항로에서 연간 6,000TEU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동량 전망치인 6,000TEU는 지난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5만 6,564TEU)의 11%, GCT(주) 물동량(2만 309TEU)의 30%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594만8000TEU로 전년 대비 1%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군산항은 5만 6,564TEU로 군산~닝보간 신규항로 개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7%로 증가했다.

군산~청도간 신규항로 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영개선과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 및 항만종사자 수입 증가 등으로 군산항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해수청, 군산시, GCT(주) 등은 국내의 주요선사, 물류중개업체 등에게 군산항의 인프라, 인센티브를 설명(홍보)해 물동량을 유치하고 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 군산해수청,군산시,GCT(주) 등과 민관 합동 포스트세일 등을 통해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군산=문정근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무주 태권도원 방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무주군 태권도원을 방문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시설점검을 하며 대회의 성공개최와 중주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6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70여개국 1,900여명의 선수들이 모여 치열한 경기를 치루게 될 태권도원의 시설 안전점검 등 대회 추진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윤식 장관은 태권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경기장 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에 민간의 준비를 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무주군 태권도원을 방문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시설점검을 하며 대회의 성공개최와 중주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

전북도는 5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억3000만원을 투자해 자동소화시스템(모니터, CCTV, 화재탐지기, 소화장치) 80대, 팽창식 구명조끼 434개,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12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는 2톤 미만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돼 어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창의적·경쟁력 갖춘 전북 공무원 양성한다

도 공무원 교육원, 제14기 핵심리더과정 입교... 44주간 교육과정 진행

전북도 공무원 교육원은 13일 도정의 핵심리더 63명을 대상으로 제14기 핵심리더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양심목 공무원 교육원장 등 교육원 간부 10여명이 참석해 핵심리더과정 입교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했으며, 남원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제14기 핵심리더 과정은 국·도정 과제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직 가치 확립, 중견리더로서 요구되는 능력 배양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식 습득, 토론 발표 중심 교육으로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자기개발 분야와 현장행정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44주간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분야별로는 공직가치, 리더십 가치, 직무가치, 자기개발 가치, 기타 등 5개 분야이다.

주요 교과 내용으로는 국·도정 과제, 직무법규, 직무전문, 직무역량, 외국어, 정보화, 자기변화 훈련, 리더십 역량, 자격증, 개인정책연구, 분임정책 연구 과정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을 분임토의 과제로 선정해 성과중심형 과제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삼각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도정시책 분야의 지도교수를

선임해 개인 정책연구 분야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양심목 공무원 교육원장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이유는 창의적인 공무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는 쉽지 않으니 본인들이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과 창의성은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핵심리더 과정은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년에 초급관리자 과정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66명의 리더들을 양성했다. /인재용 기자

구제역 차단방역에 안간힘

전북도, 긴급 백신접종·확인검사 강화 등

전북도가 구제역 추가 발생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검사 강화 등 차단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점음 발생농장 20km 내 우제류 가축 2,018호 23만 2,000두 및 도내 사육하는 소 7,955호 29만9,000두에 대해 12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전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여부 확인검사를 9일부터 실시했으며 소 일제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되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37소 전농가 449호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시군 부단체장 전달회의에서 백신접종 요령 및 접종방법에 대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구제역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 요령을 준수해 접종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접종반에 지도하도록 했다.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제검사에서도 항체형성을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축산관련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지난 주말 동안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운영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이에 대해 도 축산과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1시군 1생태관광 활성화 시군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14개 시군 생태관광 담당과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사업추진방향과 전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등이 발표됐다.

올해 생태관광 추진 방향은 생태자원 컨셉에 맞는 기반시설 구축, 주민 마을 주민 소모임 운영, 생태관광 상품 개발, 전북 투어패스 상품 연계 활성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생태관광지 전문 해설사 양성, 생태관광지 이정표 안내판 설치 등이

다.

또한,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는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현장 생태자원과 마을자원 조사, 시군별 맞춤형 주민 교육과 컨설팅,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7~9월 경에는 14시군 생태마을 중 성공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마을 대상으로 생태마을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의 관련사업 간에 연계협력을 강화해 1시군 1생태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설명회

전북도는 13일 도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기업)가 공모에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 후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

출사업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고용지원, 시군, 중간지원조직 등의 현지실사, 대면심사 및 소심사위원회,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에 결정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관(280-3781)이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251-3621)에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